

사회

“학생 인권 좋지만 교권도 중요”

‘광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 최종공청회 팽팽한 찬반논쟁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 아우를 새 조례안 거론도

“학생 인권을 강조했다만 교권 보장을 위한 내용은 빠져있다. 학생인권 조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이 26일 광주교육정보원에서 개최한 ‘광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최종 공청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공청회는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다듬기 위한 최종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다.

조례안 제정을 찬성하는 학부모 등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항의 보완과 학교의 변화를 주문했다.

학부모 김석순씨는 “체벌은 인권을 침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다. 그 기본적인 인권도 학생들에게 보장되지 않고 논란이 되는 현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조항의 경우 학교

의 교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현 광주전자공고 교사는 “이제는 단위 학교의 학교장이 앞장서 학교를 인권친화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생인권 조례에 교권 보장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준호 동신여중 교장은 “이제 (초·중등교육법)법까지 체벌을 용납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된 상태에서 ‘육상육’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교육과 생활 지도를 하라는 것은 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황윤하 수완중 학생은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되며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다’고 말씀하신다”며 “학생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학부모, 교사 등 교육 공동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조례안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윤광근 목련초교 교장은 “일부 타·시도 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라는 명칭을 도입해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교원·학부모에 대한 권리보장 방안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종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광주학생인권 조례안을 다듬은 뒤 다음 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부모, 시의회 등 일부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의회를 제대로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조례안 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 이후로 잡혀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학생인권조례 주요 조문

▲학생인권 보장 원칙=학생의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신체의 자유=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해 체벌은 금지된다.

▲사생활·개인정보 보호=교직원은 학생·교직원,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과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술권=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7분 해질 19시 40분 달돋이 01시 51분 달지 16시 4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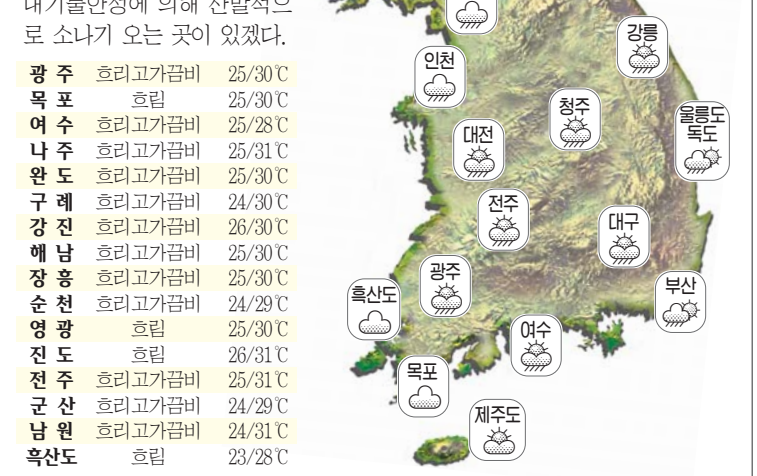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few days, including high/low temperatures and weather icons.

수시 합격자 정시지원 금지...본고사 일정 의무 공개

2013학년도 대입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의무적으로 원서접수일 이전에 시험일과 시험 시간까지 사전 공개해야 한다.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도 금지되고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대처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최초 합격자만 해당됐으나, 내년 부터는 총원합격자도 포함된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3년 11월 8일 수능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한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했다.

◇수시 지원 5회로 제한=수시 모집에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된다. 최근 몇 년 간 수시모집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물지마시 지원’이 늘어난 탓이다.

전행료가 수만원인 데도 지난해 치러진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지원 횟수가 61회인 수험생도 있었다.

◇수시합격자의 정시지원 금지=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추가 모집 지원을 금지해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수시 최초 합격자는 물론 총원 합격자(미등록 총원기간의 추가 합

격자)가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수시모집 미등록 총원기간에는 대학별로 지원자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총원 합격자를 발표, 모집인원을 최대한 뽑고 미충원 인원이 생기면 정시로 이월토록 했다.

◇입시정보 공개 강화=전형 일정과 시험 시간을 명확히 공지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일 이전에 시험일과 시험 시간까지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지원대학 간에 일정이 겹쳐 특정 대학의 응시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파란눈들의 도자기 빚기 26일 강진군 대우면 사당리 청차 박물관 앞 광장에서 외국인들이 도자기 빚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틀 청차도요지 일대에서 오는 30일부터 8월7일까지 제39회 강진 청차축제가 열린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학생수 20년 새 ‘반토막’

53.4% 감소...광주는 15.6% 줄어

광주·전남지역 학생 수가 20년 만에 각각 15.6%, 5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 수는 24만6809명으로 1990년 29만2570명에 비해 4만5761명(15.6%) 줄었다. 초등학교는 11만519명으로 1990

년 13만4493명 보다 2만3974명(17.8%) 줄어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반영했다. 교고는 9만3511명에서 6만7627명으로 2만5884명(27.6%)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6만4566명에서 6만8663명으로 4097명(6.3%) 증가해 타·시도에서 광주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학생수는 반 토막났다. 5월 말 기준으로 유치원, 초·중·고 학생 수는 27만8481명으로 1990년 60만550명에 비해 절반이 넘는 32만699명(53.4%)이 줄었다. 초등학교는 11만5555명으로 1990년 29만117명보다 무려 17만4562명(60.2%)이나 줄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7만1837명과 7만2352명으로 14만4714명과 14만350명에 비해 각각 50.4%(7만2877명)와 48.4%(6만7998명)가 감소했다. /윤영기자 penfoot@

한상대 내정자 동기생 일괄사퇴 키로

내달 청문회 직전...차동민 고검장·황희철 차관 등 5명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한상대(52·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내 연수원 동기생들이 한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에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한 내정자의 연수원 13기 동기생들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다음 달 2일께 일제히 퇴임식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이다.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한 내정자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차동민(52) 서울고검장은 다음 달 2일 중앙지검과 동일한 청사내 서울고검 15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한다. 현재 휴가 중인 차 고검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한 내정자 동기생은 차 고검장을 비롯해 황희철(54·광주) 법무차관, 박용석(56) 대검차장, 조근호(52) 법무연수원장, 황교안(54) 부산고검장 등 5명이다. /연합뉴스

인터넷 등 다수 대상 사기 사건 수사 강화

인터넷 쇼핑물과 공동구매 등 다중 소비자 사건의 소액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강도가 높아진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쇼핑물과 공동구매 등 다중 소비자 사건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 수사체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수사는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지만 대부분 소액이고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산된 사기 대상 범죄를 특정 경찰서로 이관해 묶어서 수사하는 기법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 같은 차원에서 기존에 5일 20건이던 집중수사 착수를 위한 최소 피해 신고 건수를 3일 10건으로 강화했다. 경찰은 사회적 의미가 있거나 국민 다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슬라브지붕누수' (Slab Roof Leakage) repair services. It lists 10 benefits of the service, such as preventing water from seeping into concret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한농길라강판지붕개량'.

Advertisement for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2011 Solar Power Home Supply Implementation!!). It promotes solar panel installation for homes, highlighting a 50% subsidy and providing a detailed table of costs for different system sizes.